



Global Goings-on

미 국

떨어지는 출산율 놀라울 정도의 출산율 감소가 가져온 크나큰 혜택

1798년 토마스 맬더스는 세계 인구성장이 식량공급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언한 “인구론”이란 책을 출판했다. 불행하게도 이 책의 출판은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당시 그의 책에 담긴 이론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오늘날의 선진국들로 확산되면서 출산율이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유럽 전역과 미국에서 급격히 감소했다. 사람들이 부유해지자 가족의 규모가 작아졌고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니 사람들은 더 부유해졌다.

이제 이와 유사한 일이 개발도상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들로 넘쳐나던 곳으로 생각되던 브라질, 인도네시아, 인도와 같은 곳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가족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세계 절반의 출산율은 2.1 이하이다.

출산율이 2.1이면 인구가 현상유지되므로 이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로 부르기도 한다. 2020년과 2050년 사이에 세계 출산율은 세계인구 대체율을 못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맬더스의 이론이 재부상하고 과잉인구가 초래할 결과들을 두려워하는 때에 출산율의 감소는 놀랍기도 하고 다소 안심이 되기도 한다. 인구폭발에 대한 걱정 그 자체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교훈이 담겨있다.

오늘날의 출산율 감소는 그 폭이 크고 속도가 빠르다.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의 인구 변화 전철을 매우 빠른 속도로 밟고 있다. 영국에서는 출산율이 5에서 2로 전환되는 데 1800년부터 1930년까지 130년이 걸렸으나 한국에서는 1965년부터 1985년까지 고작 20년이 걸렸다. 오늘날의 개발도상국 여성들은 세 명의 아이를 출산한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여섯 명의 아이를 출산했다. 몇몇 나라들에서의 출산율 감소 속도는 그야말로 놀라운 정도이다. 이란의 경우 1984년 7에서 2006년 1.9로 떨어졌으며 테헤란은 겨우 1.5이다. 이는 사회적 변화가 일

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이다.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의 출산율 감소는 그 자체로 특이하다. 이는 대다수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원하는 숫자만큼만 - 두 명 -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산율 감소가 강제된 중국의 경우는 예외이다.)

출산율 감소는 또한 수십억의 빈곤한 사람들이 보다 더 안정된 삶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면에서 특이하다. 그 해 수확한 것으로 생활하며 강탈이나 가뭄의 위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빈농들은 자녀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8명이라는 대식구는 재해에 대비한 유일한 보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자동차와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 새로운 중산층에게 그와 같은 극한 빈곤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이 새로운 중산층에게 아이는 기쁨이면서 가계 부채의 증가를 의미하거나 또 사고로 얻은 생명일 수도 있지만 결코 보험은 아니다.

출산율 감소는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이하다. 과거에는 인구가 경제성장과는 별 상관없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그것은 1990년대까지는 출산율 감소와 소득증가를 보인 개발도상국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보여주는 몇몇 개발도상국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나라가 대가족과 빈곤을 벗어나 부유하고 노령화된 사회로 옮겨 갈 때 골디락스(Goldilocks)기간을 - 출산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고 의존 자녀나 노인이 별로 없으며 그 가운데 조건만 맞으면 공장을 풀 가동할 수 있는 두터운 성인층을 가진 한 두 세대 -

거쳐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구의 변화를 겪는 나라들에게 출산율이 출산대체율까지 감소하는 것은 독특하고 값진 기회이다.

또 하나의 걸끄러운 진실

멜더스의 지지자라면 위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아직도 지구의 빈약한 생태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바로 지금, 인구의 증가를 막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출산율의 감소를 자축하는 것은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배를 빙산을 향해 몰되 천천히 모는 것을 칭찬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인구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고 2050년 인구가 90억에 달하게 되면서 그 분수령을 넘기 전 환경을 상당히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멜더스 학파의 주장은 옳은 것이다. 가난하지만 성장속도가 매우 빠른 개도국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궤도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이 주장은 분명 실현될 것이다. 가장 빈곤한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은 연간 1인당 0.1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미국인은 연간 1인당 20톤을 배출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수천 만 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을 탈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유럽이나 미국을 부유케 한 부의 창출 모델을 그대로 따른다면 엄청난 양의 자연자원을 소비하게 될 것이고 이는 지구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인구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곳은 기후 변화에도 가장 약하며 인구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의 결과를 악화시킬 것이다 - 식수 부족, 집단 이주, 식량 공급 부족.

이론적으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줄

일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인구 정책, 둘째, 기술, 셋째, 정부의 노력이다. 첫 번째 인구 정책은 그다지 큰 효과가 없다. 인구성장은 이미 둔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등에서의 가족계획 정책은 인구증가의 정점을 9십억에서 85억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더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식의 강압적 가족계획이 필요하다. 부유한 나라들이 세계 자원을 지나치게 소비하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게 자녀를 원하는 수보다 적게 낳으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인구정책이 환경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그리 높지 않다면 우리는 기술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 세계 경제가 보다 깨끗한 성장을 이루도록 할 수 있다. 인류는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고서도 경제성장의 열매를 즐길 수 있는 기술이 더 많이, 더 싼 값에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들이 탄소가격정책과 기타 정책을 통해 이런 기술에의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개발이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출산율 감소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켜 줄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지구를 구할 수는 없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2009년 10월 29일 / The Economist
(원문링크 http://www.economist.com/printedition/PrinterFriendly.cfm?story_id=14744915)

세계보건기구

여성건강증진에의 노력은 보건분야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
여성건강이 증진되기는 했으나 인생 주기에서 여성에게 중요한 시점에 여성을 돕는 데는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사회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건강은 지난 수 십 년간 많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청소년기와 노년기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여성들의 보건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 WHO 사무총장 마가렛 쉐 박사는 “여성과 건강: 오늘의 실태, 내일의 아젠다”라는 보고서 간행을 통해 출생부터 노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여성들의 건강과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건 분야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성은 보건에 기여하는 바가 큰 반면 수혜는 받지 못하고 있다

- 전세계적으로, 여성은 가정,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큰 공헌을 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들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적절한 보건서비스는 이뤄지고 있지 않음.
- 보건분야서비스의 80%, 에이즈 관련 질병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90%가 여성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 못함.
- 여성들을 위한 보건서비스의 경우 임신관련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에 편중되어 정신

보건, 성폭력, 자궁경부암 검사 및 치료와 같은 서비스는 부족함.

- 또한 많은 국가에서 미혼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보건서비스는 혼인한 여성에 대한 서비스보다 턱없이 부족.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더 건강하게 살지는 않아

- 에이즈, 임신 관련 질병, 결핵이 여전히 15세에서 45세 여성의 주된 사망원인이지만 45세 이후부터는 비 전염성 질병이 사망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흔히 남성의 사망원인으로 알려진 심장마비와 뇌출혈이 여성의 주된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나 남성과는 다른 증상을 보이므로 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신체적으로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건강이 남성보다 좋지 못함

- 교육부족과 낮은 사회적 지위 및 소득으로 인해 여성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남성보다 더 많은 제약을 갖고 있음.

보건분야 내외에서 정책변화와 행동이 필요함

- 여성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은 여성차별과 여성의 건강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문화적 장벽을 다루어야 한다.

2009년 11월 9일 / 제네바

<원문링크 http://www.who.int/mediacentre/news/releases/2009/women_health_report_20091109/en/index.html>

일본

by 토모코 오타케

신종 플루가 일본 전역에 마스크 사재기 열풍을 불러일으킨 직후인 지난 5월, 일본 보건성의 관료인 모리요 키무라씨는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44세의 검역관인 키무라씨는 국회위원회 앞에서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밝히면서 신종플루에 대한 보건성의 대처와 요이치 마수조에 장관을 통렬히 비난했다.

당시 나리타 공항에는 공항에 도착한 사람들 중 고열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 200여 명의 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의사 배치의 공식적 목적은 바이러스의 진입을 막기 위함이었다. 분에 찬 표정으로 키무라씨는 “나리타공항에서 보호 마스크와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던 검역관들은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마수조에 의) ‘쇼’에 활용된 겁니다.”라고 말했다.

키무라씨가 자신의 정부에 가혹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의 화려한 학구적, 실무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 년간 그녀의 이력은 곤두박질 친 것. 부서를 이리 저리 옮겨다니다가 지금은 본인이 변방으로 여기고 있는 하네다 공항의 검역소에 근무하고 있다. 그녀가 하고 있는 업무는 고열 증세를 보이는 승객들을 찾아 내어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해주는 것이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키무라씨는 “제 사무실은 여객기가 오르내리는 곳에 있는 조립식 건물이에요.”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자신의 보직에 불만인 키무라씨는 최근 작가로서 뿐 아니라 특유의 날선 언변으로TV 토크

쇼 전문가로도 성공했다. 그녀의 직설적인 제목의 책 “코세이로도쇼 호카이”(보건노동복지성의 몰락)는 책을 출간한 코단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출판된 이래 총 11,000부가 인쇄되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일하던 젊고 열정적이던 역학자였던 자신이 연구에 지나치게 열정적이라는 이유로 도쿄 카수미가 세키구에 있는 보건성 본부로 옮겨가야 했다고 말한다. 보건성에서는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이유로 상관들로부터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동안에는 “한 마디도 말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키무라씨는 보건성 관료들과의 경험을 통해 이케이 기간(의료 관리)들이 부패하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의사들로서 의료에 종사한 지 몇 년이 안에 고용되는 이 관리들은 현재 보건성에 250명이 있다. 이들은 일단 관료가 되면 실제 환자들을 진료하지 못하게 되어 지식과 기술이 급속히 낙후된다고 키무라씨는 말한다. 그녀는 이것이 일본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보건정책에 있어 “수십 년”씩 뒤쳐져 있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보건국의 의료관리들은 임상 경험이 거의 없으며 따라서 보건의 실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요.” 자신도 이케이 기간인 키무라씨의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면허를 가진 이 관리들은 현재 보건성의 요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며 이 중 소수의 고위급은 30조엔에서 40조엔의 보건예산을 좌지우지한다.

키무라씨는 몇몇 관료들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보건성의 보조금을 퇴직 후 자신들이 들어갈 공기업을 만드는 데 쏟아 붓고 있다고 주장한다.

키무라씨는 신종플루 백신 주사와 관련해서

도 이들이 전체 인구를 위한 충분한 백신 주사를 생산하기엔 열악한 국내의 소규모 백신회사 4개사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10월 1일 정부는 7천7백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신종플루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1억2천7백만 인구 모두에게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

“실제 유행성독감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만병 통치약 같은 것은 없다는 인식 하에 백신 주사는 최소한의 예방 조치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야 합니다. 만약 백신이 충분하지 않다면 국민들이 불안상태에 빠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지요. 이런 걸 예상치 못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라고 키무라씨는 말한다.

이렇게 자신이 일하는 보건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녀는 왜 그냥 훌쩍 떠나 버리지 않는걸까?

십대인 두 딸을 홀로 키우는 그녀는 이런 질문을 수 없이 해 봤으나 자신이 경험할 저항이 어떠한지 간에 자신은 내부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The Japan Times, November 1, 2009

〈원문링크 <http://search.japantimes.co.jp/print/fl20091101x4.html>〉